

육군사관학교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

친애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와 사관생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육사 제59기 여러분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이곳 화랑대에서 활기차고 당당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영예로운 대한민국 국군장교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 기쁨과 이 영광은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은 4년을 하루같이 열정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인·용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며,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과 비전을 키워 왔습니다.

특히 스물다섯 명의 여성 졸업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학교장 박준근 장군과 교수 여러분, 훈육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런 아들 딸을 두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사관생도와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커다란 역사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동북아시아는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닙니다. 거대한 시장과 막대한 부존자원이 있으며, 또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의 기반이 튼튼합니다. 지리적 위치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힘을 한데 모으면 기적을 만들어 내는 국민의 저력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냉전과 긴장의 땅에서는 번영을 꿈꿀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와 안정의 기본입니다. 나와 참여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70만 국군장병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우리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새삼스런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확고한 한·미 동맹의 원칙 아래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준비가 있는 한,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상황의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과 사관생도 여러분,

육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입니다. 육군의 역할과 책무는 앞으로도 더욱 막

중해될 것입니다. 미래의 안보환경은 '디지털 육군'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과제는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그러한 과제를 수행해낼 책임자입니다. 훌륭한 교육환경에서 첨단인 정보화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이제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 '디지털 정예육군'의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자주적 방위역량이 한층 강화된 '선진 정예강군'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육사 제59기 신임장교 여러분,

군인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4,800만 국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지난주에는 동티모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장병 다섯 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산화한 고 민병조 소령과 박진규 소령은 여러분의 자랑스런 선배들입니다.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투철한 애국심으로 조국수호의 임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투와 헌신은 동북아의 중심국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도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